

COSMOPOLITAN

MARCH 2014

love vs. Obsession

지금 우리 사랑일까, 집착일까?

DIGITAL COMMUNICATION BIBLE
 놀이처럼 즐기는 디지털 시대의 서바이벌 팁

Miranda Kerr

“행복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”

Exclusive

이효리, 현아, 한지혜
윤진서, 오지호

2014 Bedroom Olympic

그와 함께 금메달을 따보세요!

Change Your Hair Style

스타일링부터 컬러까지 97가지 핫 헤어 샘플

4.37

Single Girl's House

Hot Spring fashion Trends

S/S 패션 위크 트렌드로 뽑은 쇼핑 아이템 142

뉴욕·런던·밀라노·파리 스트리트 스타일 퀸은 이렇게 입는다!

트weed 재킷, 카디건, 블레이저 등 커리어 우먼을 위한 아우터 리스트

토틸백, 클러치, 사철펙 지금 막 선보인 뉴 백 82

별책 부록
 뷰티 멘토 김희애의 스킨케어 트레이닝 북

Start

Museum Hours

영화 <뮤지엄 어워즈>를 보고, 미술관 산책길에 나섰다. 영화에서처럼 낯선 이를 만나 교감을 나눠도 좋고, 아나어도 좋았다. 영화 포스터의 문구처럼 나의 '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' 삼청동 갤러리 골목으로 향했다. 에디터 김혜미



11:00 AM

12:00 PM



갤러리 현대 맨 처음 향한 곳은 <종이에 실린 현대작가의 예술혼>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현대(문의 2287-3500). 이종섭, 박수근 등 근대미술 작가부터 현대미술 작가까지 총 30명의 작품 132점을 만날 수 있었는데, 제목처럼 캔버스가 아닌 '종이' 위에 새겨진 작가들의 정성과 영혼이 느껴져 전시를 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게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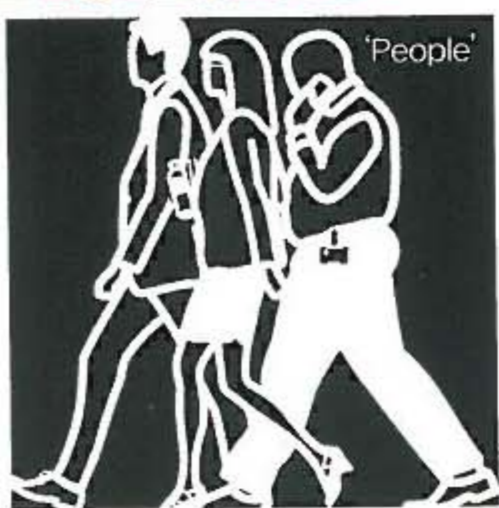


오설록 티하우스 미술관을 둘러보고 나니 조금 출출해졌다. 맛있는 디저트가 당겨 국립현대미술관 옆에 있는 오설록 티하우스(문의 739-9293)로 직행했다. 제주도에 가면 오설록 티하우스의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. 녹차 아이스크림과 녹차 롤케이크를 한 조각 주문해 폭풍 흡입했다. 아, 이 행복함이란!



3:00 PM

국제갤러리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나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<줄리안 오피>전이 열리는 국제갤러리(문의 735-8449)로 향했다. 간단한 선과 색만으로 깊은 사유를 끌어내는 줄리안 오피의 톡톡 튀는 화법은 보면 볼수록 놀라울 따름이다. 그림을 한 점 구매하고 싶을 만큼 예쁘고, 매력적인 전시였다.



1:00 PM

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(문의 3700-2700). 갤러리의 건축 디자인부터 남다르다. 전통과 현대,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절묘하게 뒤섞은 '느낌 있는' 공간. 한옥 디자인의 건물이 내다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자리를 잡고, 글로벌 북 큐레이터가 엄선한 아트 디자인 북, 사진집 등을 보다 보니, 아이디어가 절로 샘솟는 듯하다.

뉴욕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가 엄선한 1만3천여 권의 디자인 북이 전시돼 있다.



4:00 PM

6:00 PM

여유로이 쉬어가며 전시를 즐기길 좋다.



아트 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.
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음 목적지는 오픈한 지 세 달 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(문의 3701-9500). 9개 전시관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끊고 탁 트인 전시장 곳곳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둘러보는데, 이 모든 게 내 것인 양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든다. <연결_전개>전, 서도호의 <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> <알레프 프로젝트> 등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어 전시관 이곳저곳을 활보하며 회화, 조각, 설치, 디지털 작업 등 다양한 콘셉트의 작품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.



서도호의 '집속의 집'

이와 사실 전화 극장



아트선재센터 삼청동 미술관 여행의 끝자락은 아트선재센터(문의 733-8948)로 마무리된다.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<6-8>전이 열리기 때문. 빛과 사운드, 설치를 활용한 감각적인 작품을 밤에 즐기는 기분이 꽤 낭만적이었다. 시공간을 넘나들며 예술에 폭 빠졌던 삼청동에서의 휴일. 영화처럼 영혼이 통하는 낯선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, 나의 잃어버린 시간과 감각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.



밤에 열리는 이색 전시.

로와징 '밤에 하는 일을 위한 스케치'

(미술관, 카페) 이상, (작품) 김미슬